

## 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츠빙글리 연구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영의 억압의 다섯 가지 양태
- III. 츠빙글리의 정의론과 사회윤리
- IV. 개인적 책임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 V. 이상적 공간으로서 도시의 삶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7>

---

• ABSTRACT •

---

## An Inquiry into Huldrych Zwingli from the Perspective of Iris Marion Young regarding Justice

Chung, Meehyun(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ethical perception of Huldrych Zwingli utilizing the view point of Iris Marion Young regarding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Justice. In order to make a kind of dialogue between Iris M. Young and Huldrych Zwingli the author has focused on the social ethic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he goodness of community which have common grounds. The reason why this kind of comparison is possible between a Swiss reformer of the 16th century and a US American female scholar of the 21st century is that they share a common interest regarding the consciousness of justice and social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is composed by two major parts: firstly, it introduces the perception of I. M. Young regarding five faces of oppression and H. Zwingli regarding oppression and justice. Young considers not only the injustice of distribution, but also the whole complexity of oppression and injustice. Secondly, it deals with issues of social structure, justice, sin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mercenaries, the incident of breaking the fast by Zwingli and the frame of oppression of Young. Her approach corrects male dominant understanding of discourse about justice and includes the aspect of gender for examining injustice in society. This is her achievement of seeking social justice in a democratic government. The efforts of Zwingli who sought justice and public responsibility resulted not only in an idealistic theory, but also brought about the example of transformation for Swiss society through reformation. Thus it can offer useful clues for correcting and overcoming flaws in Young's theory. Her option of and ideal City Life has certain limitations for application to reality. Even though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short critical comments including Zwingli's point of view and the contemporary global problem of urbanization, it requires further research in order to provide an optional solution.

**Key words:** Justice, Iris Marion Young, Huldrych Zwingli, oppression, responsibility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여성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 1949-2006)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 의식과 공동체성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의 사회윤리를 고찰하고자 하며, 방법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영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보한 정치철학가로서 젠더의 시각을 겸비한 사회윤리적 사유에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sup>1)</sup> 16세기에 스위스에서 살았던 한 남성 신학자와 21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한 여성 정치철학자와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들에게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죄의 문제와 정의를 향한 기본 의식을 연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공동체성, 공동체를 향한 사회윤리라는 화두는 이 둘 사이의 접촉점으로 설정될 수 있겠다. 사회정의와 분배 균형의 문제에 민감했던 “정의와 차이의 정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sup>2)</sup>의 저자 아이리스

1) 영에 대한 논문으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허지민, “견제력과 포용: 아이리스영 (Iris Young)의 소통 민주주의 비판”(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장미경, “페미니스트 근대론자들: 낸시 프레이저, 아이리스 영, 앤 필립스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43권, 1999, 154-174; 이현재, “지구화 시대 도시정의를 위한 시론: 분배정의와 차이, 인정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2권, 2호, 2011, 349-377; 김원식, “정의론과 여성주의: 아이리스 영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4권, 2012, 23-50.

2)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영의 저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책은 1990년 아메리카정치학회가 수여하는 빅토리아 슈크 상(Victoria Schuck Award)을 받았을 정도로 인정받은 책이었다. 이외 참고할 만한 그녀의 대표저서는 다음과 같다. Iris Marion Young, *Intersecting voices: dilemmas of gender,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Iris Marion Young,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Iris Marion Young, *Global challenges: war,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for justice*, (Malden, MA: Polity, 2007); Iris Marion Young,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마리온 영의 사유의 틀이 츠빙글리에게서 발견된다고 보며, 이에 착안하여 책임의 공동체성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고찰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핵심이다.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의 초대를 놓은 츠빙글리를 현대의 정치 철학자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16세기의 종교 사회적 담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츠빙글리 사회윤리를 단지 화석화된 교리나 구시대적 산물로 보지 않고, 재해석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산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영의 정치철학적 사유의 내용도 단순히 후기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론과의 논의와 토론의 결과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사유와 시도가 종교개혁적 담론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비판적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과제는 첫째 영과 츠빙글리의 특성을 제시하는 억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해와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구조와 정의, 그리고 죄와 책임성의 문제를 츠빙글리 당시의 사회적 상황성과 영의 논리 전개의 틀에서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II. 영의 억압의 다섯 가지 양태

아이리스 마리온 영은 정의에 대한 담론에서 분배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배와 억압의 틀을 세분화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그녀는 젠더 담론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문제에 주목해서 억압의 양상을 일차원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지만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양각색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과 지평을 넓히게 한다.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그녀의 비판과 억압의 다섯 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sup>3)</sup> 즉 그것은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권력없음(powerlessness)”,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폭력(violence)”의 형태로 범주화되어 질 수 있다. “문화 제국주의”를 제외한 다른 네 가지는 모두 노동과 재화의 분배 등과 더욱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억압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억압의 형태 모두는 분배 부정의를 초래할 원인제공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억압의 문제를 분배 정의로만 단순하게 환원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배 패러다임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설명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분배의 문제에서 정의를 논하기는 하지만, 영은 논의의 범위를 금전적 차원과 일자리, 사회적 지위, 부, 수입 등 물질적 의미에서의 분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기회, 자유, 결정권, 노동의 분화, 권리와 권력, 문화 등 비물질적 차원을 포함한 총체적 분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분석의 과정에서 젠더의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다. 즉 재화의 공정분배가 곧 사회부정의를 모두 종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이 주장하는 것은 분배로 정의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려고 하는 영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sup>4)</sup> 그녀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분배하느냐

3)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9-65; 조주영, “정의와 차이의 정치: 아이리스 마리온 영”, 『여/성이론』, 28권, 6호, 2013, 84-93.

4) Iris Marion Young, *ibid.*, 15.

의 단순한 문제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서 분배의 기본 전제와 틀이 되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배 뿐 아니라, 제도와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배의 흐름과 모순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영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배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배(domination)와 억압(oppression)이 부정의(injustice)를 개념화하기 위한 일차적 용어가 되어야만 한다”<sup>5)</sup>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와 억압”의 구조에서 부정의를 파악하여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비단 영의 독보적 업적은 아니다.<sup>6)</sup> 이미 이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론을 전개한 학자들과 사상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sup>7)</sup>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영은 이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적 지배와 억압의 틀과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다양한 부정의의 양태들을 특별히 젠더와 관련하여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어 내고 있다. 영은 사회 구조적, 제도적 부정의의 문제를 각 사람이 속한 집단의 차이와 연관 지어 살펴보며 남성 중심의 상황분석이 아니라, 젠더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래서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포함한 차별의 문제를 지배와 억압의 양상과 관련하여 포착함으로써 분배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의 복합적인 부정의의 현상과 그 한계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영이 제시한 이 다섯 가지 개념을 통해 분석한 억압의 형식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등 억압을 행사하는 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

5) Iris Marion Young, Ibid., 9.

6) 예를 들어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존 롤즈/황경실역, 『정의론』(서울: 이학사, 2003).

7) Nancy Fraser/Axel Honneth,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김원식·문성훈역,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고양: 사월의 책, 2014).

회 구조적인 측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억압의 주체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한정하여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의 문제를 한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하여 보는 것이 아니며, 규범화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영이 말하는 억압의 다섯 가지 유형의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착취(exploitation)

착취는 노동체계에 안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억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노동과 구매력을 설정하는 시장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권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다.<sup>8)</sup> 영은 착취란 “한 사회 집단의 노동 결과가 다른 집단의 이익으로 전이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sup>9)</sup> 억압의 형태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착취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이원론적이며 양자적 관계에서 포착했던 맑스주의와는 달리, 조금 더 세밀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착취의 현상과 구조를 분석하여 보는 것이며, 더욱 규범적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 2. 주변화(marginalization)

주변화란 노동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억압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주변화란 성과 인종차별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별 가운데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연령, 인종, 미혼모, 장애인등이 그

8) Iris Marion Young, *ibid.*, 49.

9) *Loc. cit.*

이유다. 그래서 주변화된 사람이란 “노동체계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sup>10)</sup>을 뜻한다. 즉 이러한 잣대로 평가된 사람들이 주변인으로 분류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영은 주변화를 가장 위협한 억압의 형태로 꼽고 있는데, 노동체계 바깥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화로 내몰려져 있다. 이들은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없고 배제되어지는 것이다.<sup>11)</sup> 재화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노동 시장에서 배제당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직업 생활에서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 전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심각한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sup>12)</sup>

### 3. 권력없음(powerlessness)

영은 맑스주의가 말하는 계급주의로 인한 착취구조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 상황을 포착한다. 전문적 직업이 없는 사람은 착취 뿐 아니라, 권력없음이라는 억압의 한 형태에 고통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체계 안에서 그리고 노동의 진행 과정에서 권력없음이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정책결정이나 실행의 단계에 이러한 사람들은 참여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계적 노동 분업 현장에서 혹은 행정체계상 단순직,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뿐만 아니라 권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것이 억압의 한 형태이다.<sup>13)</sup> 이러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 노

10) Iris Marion Young, *ibid.*, 53.

11) *Loc. cit.*; 이현재, “지구화 시대 도시정의를 위한 시론: 분배정의와 차이인정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권, 2호, 2011, 368-369.

12) *Loc. cit.*

동구조는 특정 집단을 착취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며, 이 상황 속에서 억압에 시달리는 구성원들을 주변화 하게 만든다. 자율권도 없고, 독특한 능력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이들의 구조적 현상은 이들 자체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게 하며, 생각이나 감정의 의사 표현 등 모든 기회를 박탈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직 사람들로 보이기 위한 외형적 모방에 급급하게 된다.

#### 4.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영에 따르면, 문화 제국주의는 지배 집단의 문화, 기준, 경험을 보편화하고 규범화하여 이를 보편적이고, 좋고, 정상적인 것의 기준으로 삼고, 이러한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 집단을 다르고, 나쁘고, 비정상적이며, 타자화(위험한 것) 시켜서 그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에 대한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sup>14)</sup>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규범으로 보고, 하층 노동계급에 속하는 주변화된 사람들의 문화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선입견을 갖고 규정한다. 이러한 일들이 문화제국주의적으로 의도된 것은 아닐지라도 지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계층적 이원화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수자들은 지배문화의 시각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이

13) Iris Marion Young, *ibid.*, 56ff.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겪는 노동 현장에서의 억압이 권력 없음의 대표적인 예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3D 노동인 위험하고, 더러운 것으로 상징되는 비전문노동이나 자국민들이 피하고자 하는 노동 등 어려운 작업에 배치되면서도 저임금의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달리 개선할 구조적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Iris Marion Young, *ibid.*, 60.

중 의식적 종속 상태에 빠진다.<sup>15)</sup>

### 5. 폭력(violence)

영은 특정 정체성을 무시하는 문화적 억압으로서 폭력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폭력은 억압의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가시적이며 분명한 것이다. 다름의 가치, 타자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화제국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이 특정 문화적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욕하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며, 피해와 불이익을 가하게 하며 또한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곧 특정 집단에 가해지는 폭력은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와 구조적인 사회 부정의의 전반적이고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6)</sup> 이러한 억압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고찰은 노동체계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화, 계급, 종교, 성적 성향성, 신체적 특성, 연령 등의 복합적 현상에 대하여서도 아울러 고려하게 함으로써 그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혀주게 한다.

## III. 츠빙글리의 정의론과 사회윤리

### 1. 스위스 용병제도와 츠빙글리의 대응

영과 츠빙글리는 죄와 정의의 사회구조성과 공동체적 책임의식에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적 죄악성에

15) Loc. cit; 김원식, “정의론과 여성주의: 아이리스 영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24권, 2012, 37-38.

16) Iris Marion Young, *ibid.*, 62.

근거한 체계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책임 윤리를 촉구하는 영의 시도는 16세기 츠빙글리 종교개혁과 사회 윤리적 시도를 새롭게 읽어내게 한다. 그러기 위하여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사회문제로 용병제도를<sup>17)</sup> 둘러싼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세기에 국왕과 교황의 권력 투쟁 욕구는 다양하게 드러났는데 교황이 서임권을 갖고서 태양과 같이 군림하던 그 절정기인 중세기에도 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황의 권력에 맞서는 세속적 국왕의 권력이 점차 강화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에서 여러 형태의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스위스 연방의 사람들이 용병의 형태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게 되었다.

높고 험준한 알프스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농산물의 재배 면적 자체가 적었던 스위스는 당시에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까지 확산되면서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이 프랑스의 왕과 교황의 군대에 속하여 전쟁을 대신 치루는 용병제에 응하는 방법이었다. 16세기 초기 교황은 취리히에 사절을 보내서 교황에게 용병을 보내라고 요청하였다.<sup>18)</sup> 마침내 1521년 5월 스위스 연방의 사람들은 용병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용병금지법으로 정부가 막아낼 수가 없었다. 츠빙글리는 그 당시에 군종사제로서 전장에 나아갔었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젊은이들이 가난 극복을 위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전쟁의 참상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스위스 연방 사람들이 용병에 참여했던 역사는 수세기에 이르지만,

17) 스위스 용병제도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정미현, “용병제도를 통해 본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사회 경제적 배경”, 『유럽 사회문화』, 제 15권, 2015, 241-270.

18) Martin Haas, *Huldrych Zwingli*,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109.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16세기였다. 취리히를 중심으로 츠빙글리는 이 용병제도와 그것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고발하며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조적인 사회 개혁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sup>19)</sup> 츠빙글리는 종교개혁가로 부상하면서, 프랑스와의 동맹도 문제시 하였고, 교황과도 절연하고 무엇보다도 교황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교황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용병제의 문제성을 츠빙글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 것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본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용병제와 연금제도를 주선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이익집단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당시 교회 지도부였고, 도시의 신흥 귀족집단이었던 것이었다. 한편 젊은이들은 이러한 치열한 전투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살아 돌아오더라도 신체가 부상당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귀향해서도 노동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더욱이 용병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장에 참여하여 희생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중개집단인 교회 지도층과 도시의 소수 신흥 귀족들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전형적인 순환 구조와 불의한 체계를 보여주는 실상이었다. 이러한 모순체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츠빙글리는 사회체제 개혁의 시도를 촉구했던 것이다. 즉 정치적, 사회적 구조 개혁 없이

19) 14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스위스 연방에서 백삼십만에서 백오십만 정도의 남자들이 용병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귀향한 생존자는 약 30%에 이르렀다. 용병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500년 무렵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10-12퍼센트가 용병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평균 3-4퍼센트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세기 이후에는 스위스 내지 칸톤에서도 용병참가율이 2퍼센트가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Hans Conrad Peyer,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remden Dienste für die Schweiz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Könige, Stadt und Kapital*. Aufsätz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des Mittelalters,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1982), 219-231.

한 개인의 책임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의 조처였다.

영이 제시한 오증적 억압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용병제를 통하여 이들이 받게 되었던 임금은 노동체계 안에서의 전형적인 착취와 억압의 적나라한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의 경제상황은 이러한 불의를 용인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용병 나갔던 젊은이들이 신체적 부상을 입고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된 후에는 노동체계 바깥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주변화 된 억압 상황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었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용병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이들에게 이 용병제의 모순을 개선하거나 불의함을 고발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발언권이나 결정권한은 없었고 결국 이들은 권력없음의 형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용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방 외래문화에 노출되고 여기서 화려함과 사치의 관습에 젖어들고 종속되게 됨으로써 문화 제국주의의 구조 속에 살게 된다. 이들은 땅을 경작하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고 경제적인 종속 구조의 체계 가운데 용병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영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의 주체로서의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구조적 부정의가 고통 받는 이들을 더욱 고난으로 내몰았고, 사회 취약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더욱 복합적으로 가중시킨다는 것이다.<sup>20)</sup>

20) 영은 그래서 정의의 중심 주제를 기본구조(basic structure)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와 연결 짓는다. 아이리스 M. 영/허라금·김양희·천수정 역, 앞의 책, 122ff. 그러나 정의의 중심 주제를 사회의 기본 구조적 문제로 파악한 것은 존 롤스 이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로부터 찾아 볼 수 있겠다.

## 2. 츠빙글리의 정의론

앞서 현상학적으로 살펴본 억압의 다원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학 윤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츠빙글리의 정의론을 이제 도입하고자 한다.<sup>21)</sup> 현대 개신교 신학 윤리에 기초를 놓았던 츠빙글리 신학의 출발점은 한 개인의 구원문제라기 보다 그 출발부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윤리에 있었다. 용병제도와 연금제도와 결부된 교회의 이권 획득과 정의롭지 못한 부의 축적, 이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다. 1520년 초에 페스트에서 구사일생으로 회복된 후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그의 존재론적 체험을 노래한 시에서 그의 개혁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sup>22)</sup>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여 참을 것입니다. 당신이 안계시면 아무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sup>23)</sup>

그의 윤리학과 정의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sup>24)</sup>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의 빛에 비추어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법질서를 존중하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할 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질적 차이”를 강조한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에게 요청하는 윤리적인 열 가지

21) 츠빙글리의 정의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술하고자 한다.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 사회윤리』, 제31권, 2015, 217-249.

22)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장신논단』, 제46권 2호, 2014, 115-135.

23) Huldrych Zwingli, *Das Pestlied*,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결 역, 『페스트의 노래』,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0.

24) 정미현, 위의 글, 217-249.

의 사항을 소개하며<sup>25)</sup> 바람직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츠빙글리는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특히 정의의 근원이 됨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정의로우며 지고선이다.<sup>26)</sup>

그래서 츠빙글리는 불완전성에 기초한 인간적 정의와 완벽하고 지고선이신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의 정의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상을 통한 은혜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 모두의 불완전성, 불량성이 가늠될 수 있으며,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정의만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분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선사 되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전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 정의에 의하여 의로운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 불완전하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인간적 정의를 가련하고 아주 불완전한 정의라 부른다. 인간에게는 여러 형태의 계명이 주어져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이 온전히 지켜질 때 다른 계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인간의 망가진 자연성으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져야만 했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 마음에 흠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누

25) 홀드리히 츠빙글리/정미현 역,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말씀과 교회』 (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46권, 2008, 271-274.

26) 츠빙글리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조용석,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Theozentrik):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권, 2011, 233-253.

구도 하나님의 정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종교적 의미에서 개인적 삶의 차원에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적 정의, 즉 국가 권력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명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고,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혹은 선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 정의와 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선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IV. 개인적 책임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까지 사회현상학적으로 영이 파악한 다섯 가지 억압의 양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며, 사회 윤리적 근거로서 츠빙글리가 제시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책임론을 주장한 영의 이론을 살피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츠빙글리의 금식규정문제와 용병제 반대를 통한 종교, 사회적 변혁 모델과 구체적으로 연관 지어 보고자 한다. 츠빙글리를 영의 렌즈로 읽으려고 할 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회구조로서의 정의의 문제이며, 둘째는 죄와 책임의 문제이다.

##### 1. 사회구조로서의 정의의 문제

영은 그녀의 또 다른 대표적 저서이며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저서인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정의의 주체로서의 사회구조의 문제와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sup>27)</sup>

그 핵심은 한 개인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적 역학관계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함께 살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영은 찰스 머리(Charles Murray 1943-)와 로렌스 미드(Lawrence Mead 1943-)에 의거해서 빈곤 극복의 문제를 위한 세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sup>27)</sup> 첫째로 빈곤의 개인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둘째로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로 개인적 책임이 모든 문제의 주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영은 이런 개인주의화된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파에게서 뿐만 아니라, 좌파의 분석에서도 드러남을 주목하고 염려한다.

이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함께 힘써왔던 과거적 장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도전이며, 영은 이 점을 되살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영은 빈곤의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양자택일적 선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개인행위자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정상적 방식으로 자기 일을 한 개인에게도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을 야기 시키는 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빗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양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에 관련하여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난 극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상과 최적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해명한다. 세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적 책임담론으로 부와 빈곤의

27) 이에 대하여 영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 내 불평등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으나, 이를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Iris M. Young, *Responsibility for Justice*, 아이리스 M. 영/허라금·김양희·천수정 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서울: 이후, 2013).

28) 위의 책, 38-39.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리스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1931-2013)과 존 로머(John Roemer 1945-)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개인적 책임과 아울러 구조적 부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sup>29)</sup> 이러한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그녀는 “정의의 주체로서의 구조”라는 주제 하에 빈곤의 발생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여 내고자 시도한다.

## 2. 죄와 책임의 문제

영은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독일 출신의 여성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1906-1975)와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비판적 연대감을 드러낸다. 책임과 죄를 한 호흡으로 엮으려 했던 아렌트와 달리 아이리스는 책임에서 죄를 구분하여 내고자 한다.<sup>30)</sup> 죄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란 과거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집단에게 보다는 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책임은 미래 지향적이며, 해야 할 의무를 일깨우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게도 부여되는 의식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책임의 명령을 벗어날 수 없고, 조직화된 공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츠빙글리의 용병제와 관련한 사례를 연결시켜 볼 때, 일차적 책임은 돈을 벌고자 하여 용병에 참여한 각 개인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처

29) 위의 책, 69-87.

30)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경우를 재구성하면서 정치적 구조 악에 저항하지 못한 그의 죄와 책임성을 함께 연관하여 해명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무능한 행동을 가져왔다고 본다.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한나 아렌트/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서울: 한길사, 2006).

럼 극도의 빈곤상황에서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이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개인에게만 먼저 죄를 물을 수 없다. 또한 용병제도를 통하여 부를 축적했던 교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만 죄를 묻고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았다. 아이리스가 구조적 부정을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처럼 공유된 책임성이 중요하다. 구조적 부정의 발생을 막으려면 집단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용병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다수의 책임의식과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생겨진 이익집단이 축적되어지는 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한 체제를 지속시켰던 문제가 아울러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이러한 체제가 가능하도록 용인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의식도 문제였다.

츠빙글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했던 방법은 용병제의 모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회 안에서의 직, 간접적인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청년들에게 용병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 문제성을 알려 주었던 것이다. 이들이 용병에 참여하여 정신과 육체를 망가트리는 대신에 건강한 농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며 생산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현재는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널려있는 자기 밭들을 풀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잘 경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sup>31)</sup>

31) Huldrych Zwingli, *Eine freundliche Bitte und Ermahnung an die Eidgenossen*, 홀트라이

츠빙글리가 농사를 장려하고 스위스의 지형에 맞는 농작법을 말하면서 생산된 작물은 재화 없이 물물교환 형태로 유통과 경제 순환구조를 말하고 있는 내용도 무척 구체적이다.

“비록 우리 땅에서 ... 특별하거나 사치스러운 농작물들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땅은 버터와 마이스터 양념, 그리고 우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그 위에서 말과 양 그리고 갈색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리고 튼튼한 면직물과 포도주와 곡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한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꾼 생산물을 여러분에게 부족한 생산물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sup>32)</sup>

츠빙글리는 이렇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의 추구가 모든 사람의 공동의 선을 위협하고 타자를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건강한 노동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구조가 선하게 작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이다. 영은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이 지배문화의 시각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이중의 식적 종속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문화제국주의”라고 보았는데, 이미 츠빙글리 시대에 당시 젊은이들은 그와 같은 지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해외원정을 통하여 접하게 된 사치와 향락을 부추기는 용병제에 저항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러한 문화적 종속구조가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히 츠빙글리/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73.

32) 같은 글.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러한 경제의 순환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널리 퍼져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일하겠다는 사람 보다는 놀고먹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선한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이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한 노동은 곡식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그 곡식으로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없는 사람의 피 값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양심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전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그 곡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sup>33)</sup>

이렇게 육체노동을 구체적 대안 해법으로 제시하며 츠빙글리는 젊은 이들이 용병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계몽하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그 문제 상황을 알리고 경제 구조의 개혁을 촉구하였던 것이다.<sup>34)</sup>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취리히 시의회를 통하여 단계적이며,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힘썼다. 이에 대한 츠빙글리의 비판적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금식 규례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sup>35)</sup> 츠빙글리가 본격적으로 취리히 그로스뮌스터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행하였던 강해설교와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담겨있던 비판적 설교가 취리히 시의회에 영향을 입히게 되었고, 이러한 까닭에 1522년 1월부터 용병제의 부분적 폐지가 실행되었다.

중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회적 관습과 신앙적 규례 가운데 한 가지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금식 규정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여기는 사건

33) 같은 글.

34) Huldrych Zwingli, *Eine göttliche Ermahnung der Schwyzer*,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522)」,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10.

35)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12.

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시지 사건”이었다. 츠빙글리의 취리히 종교개혁은 바로 금식규례를 어긴 이 사건으로부터 공식화되어 갔다. 문제의 발단은 1522년 사순절 첫 주일인 3월 9일 저녁에 츠빙글리가 배석한 가운데 그를 포함하여 12명의 사람들이 취리히의 출판업자인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Christopher Froschauer 1490-1564)의 집에 모여 소시지를 먹었던 사건이었다.<sup>36)</sup> 이 12명의 사람들에는 아인지델른의 신부이자 후에 성 베드로 교회 목사로 선출된 츠빙글리의 친구였던 레오 유드(Leo Jud 1482-1542)와 당시 길드의 도제들과 수공업자등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츠빙글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소시지를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프로샤우어가 식탁에 소시지를 대접한 것은 ‘금식기간 중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교회가 정한 예외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sup>37)</sup> 츠빙글리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율법으로부터 종속되는 구조를 벗어나게 돕는 것이었다.

엄격한 가톨릭적 전통인 금식 규례를 위반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리히 시 전체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커지게 되고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취리히 시가 혼란에 휩싸이면서 취리히 시의회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이 음식규정 위반을 크게 죄악시 했던 사람들은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다. 그런데 츠빙글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인쇄업을 포함한 고단한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방적 교회의 규례를 어기는 것을 츠빙글리는 묵인하였던 것이다. 츠빙글리는 사순절일지라도 사람들이 몸이 필요로 하는 육식을 먹고 건강

36)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글, 116.

37) Samuel Lutz, *Einleitung: Die freie Wahl der Speisen*, 사무엘 루츠/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한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3.

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몰아세우며 그 살을 취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교회 지도층 인사들의 죄는 금식 규정을 어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악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금식규정을 어긴 이들을 옹호하면서 츠빙글리는 그로스뮌스터 교회 강단에서 1522년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금식규제문제에 대하여 설교하였고, 1522년 부활절 직후인 4월 16일 이 설교를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그 목적은 첫째, 츠빙글리의 친구들을 주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둘째, 교회의 규정 때문에 동요하는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며, 셋째, 자신의 종교개혁적 주제들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다.<sup>38)</sup> 이 설교를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Die freie Wahl der Speisen, 1522)”라는 글은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위한 기치를 들게 되는 공식적 문헌이 되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규범, 교회법에 관한 유일한 기준은 성서이다. 둘째 교회가 지켜 온 전승과 전통도 성경에 일치될 때 정당하며, 그것을 준수할 가치가 있다. 셋째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적, 종교적 규정들은 폐기되어야 하며, 성서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sup>39)</sup> 넷째 성서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다.<sup>40)</sup>

38) Huldrych Zwingli, *Die freie Wahl der Speisen*,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결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4.

39)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2) 시간적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은 항상 가능하다. 3) 사람들은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부들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서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 5)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금식하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홀트라이히 츠빙글리, 위의 글, 45.

40) 위의 글, 44.

츠빙글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계몽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고기를 못 먹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sup>41)</sup> 무엇보다도 기쁨이 빠진 계율 준수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전통적 예전을 따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 특정한 절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본질적이고 항상 일관되게 실천해 온 정의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동은 정의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일년 내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며, 그 밖에 다른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금식 기간에 한 일이면 충분한 것이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sup>42)</sup>

츠빙글리는 사람이 음식을 못 먹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교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조건 없이 적용하는 윤리로서 음식 규정이나 금식 등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을 시간을 초월한 율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억지임을 강하게 비판한다.<sup>43)</sup> 이 소시지 사건을 발단으로 취리히 시에서는 종교개혁의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의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sup>44)</sup> 이를 통하여 츠빙글리는 기독교적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종교개혁적 정신에 입각하여 복음을 해석하는 역할 모델이 되어 주었다.

이와같이 프로샤우어의 자발적 식사모임에서 출발한 사적 모임은 교

41) 위의 글, 75.

42) 위의 글, 98-99.

43) 위의 글, 103.

44)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119.

회의 공적 교회 갱신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전체 교회의 연대적 행동으로 확대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sup>45)</sup> 면죄부 판매와 용병제로 부를 축적하던 이들 교회 지도층 이익집단과 이를 묵인하고 독려한 전제 군주들에 맞서서 취리히 시의회는 1512년부터 성직자들의 재산축적을 막고 도덕적 타락을 방제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치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나섰다. 취리히 시의회는 소의원제와 대의원제로 구성되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합의 구조를 정치에 도입한 모범적 사례였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을 통하여 츠빙글리는 죄가 개인적 차원과 내면적 성찰로만 축소되지 않게 하고,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츠빙글리와 영을 이어줄 수 있는 정치적 사회 윤리와 책임 윤리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자리이다. 이처럼 영이 구조적 부정을 분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정치적 책임을 발전시킨 것은<sup>46)</sup> 이미 수백 년 앞서서 츠빙글리와 취리히 종교개혁에서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용병제와 연금제의 유혹에 종속되어 영이 말하는 오중적 억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츠빙글리의 연민과 연대의식 속에서 싹튼 것이었다.<sup>47)</sup> 그러나 츠빙글리에게서는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드러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젠더정의를 향한 접근 방법을 찾아보기는 힘들었고 그 점에서 반쪽의 개혁으로 남은 것이다.<sup>48)</sup>

45) 사무엘 루츠/임걸 역, 앞의 글, 46.

46) 영은 아렌트의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이 내용을 도출한다. 아이리스M. 영/허라금·김양희·천수정 역, 앞의 책, 167.

47) Peter Winzeler, *Zwingli als Theologe der Befreiung*, (Basel: Friedrich Reinhardt Verlag, 1986), 40-42.

48) 물론 16세기의 남성 종교개혁자를 21세기의 여성 정치 철학자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츠빙글리만 그 시대의 일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젠더문맹일 뿐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 정의론을 이야기 하는 학자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영은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적 정의론이 제시한 분배정의이론의 편협성을 수정

## V. 이상적 공간으로서 도시의 삶

영은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 부정의의 문제에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지구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적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지구적 해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된 책임의식과 아울러 구체적인 매개변수를 들어 설명하는 영의 표현을 보면 첫째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자의 권력(power), 둘째 행위자가 받는 특권(privilege), 셋째 행위자의 이익(interest), 넷째 집단역량(collective ability)<sup>49)</sup>을 들고 있다.<sup>50)</sup> 영은 결론적으로 이질적 집단 사이의 상호 인정과 관용을 통하여 도시의 공공성(publicity)<sup>51)</sup>과 도시적 삶의 공간에서 미래지향적 대안 사회의 가능성과 전 지구적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은 개인주의적 죄성과 부정의를 넘어서서, 복합적 차원에서의 사회구조적 관계를 살피는 정의를 주장할 뿐 아니라,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정치를 강조한다. “정치란 모든 사회적 갈등이 등장하고 해

---

하고, 사회부정의와 억압의 복합적 현상을 젠더담론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볼 때에 츠빙글리가 지적한 용병제도의 문제성은 남성적 시각에서만 파악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미쳤던 영향과 파급 효과를 알아볼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49) 영은 자기의 소속 집단을 변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데, 여러 형태의 집단 가운데 교회에 주목하기도 한다.

50) 아렌트와 달리 죄와 책임의 구분 논리를 펼치고 있는 영의 논지는 행위자가 문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 인과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구조적 부정의가 도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책임을 계속 지니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해당된다. 그녀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관찰과 감시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과거적 차원의 죄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적인 구조적 부정의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역설한다.

51) Iris Marion Young, *ibid.*, 226-256. 영은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공존하는 도시의 공공성(publicity)은 다원성과 이질성을 끌어안고 서로 의견교환과 경청을 통하여 차이의 정치와 책임적 정치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소되는 포괄적 장이며, 그런 한에서 지배와 억압에 대한 모든 저항과 비판은 결국 정치적 일 수밖에 없다.”<sup>52)</sup>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아이리스가 차이의 정치학을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 공간으로서 도시(good city life)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제안하는 “도시의 삶(urban life)” 개념은 차이의 정치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영이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차원의 자결권을 강조하면서 소규모공동체를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들에 맞서기 위함이다.<sup>53)</sup> 조화와 합의에 기초한 투명한 사회에 대한 열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공동체의 이상들은 루소주의적 이상(The Rousseauist Dream)에 근거한 푸코의 개념과 맞물려 있다.<sup>54)</sup> 영은 이러한 공동체 이념이 그 내적 폐쇄성과 단일성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타자들에 대한 배제를 수반하며, 소규모 공동체들은 횡적, 종적으로 복합적인 사회 부정의에 대해서는 대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sup>55)</sup> 오늘날 선진 산업사회의 경우 이미 주어져 있는 불가피한 조건으로 도시와 도시적 삶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영은 강조하고 있다.<sup>56)</sup>

그래서 영은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도시의 삶을 공동체의 이념을 확대하고, 기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이상으로 제시하려 한다.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고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자로서 자발적인 다양한 사회관계성 속에서 관계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고, 서로간

52) 김원식, 앞의 글, 39.

53) 위의 글, 39-43.

54)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229.

55) Ibid., 250.

56) Ibid., 237.

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 즉 영이 말하는 “도시성(urbanity)”은 낯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 장소성(space)이며, 그룹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한 형태이다.<sup>57)</sup> 도시에서 사람들 혹은 집단들은 그들 모두가 속한 공간과 제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획일성, 단일성이나 공통성 등으로 단순히 해체되고 융합되는 것이 아니다. 영은 도시 공간에 거주하고 머물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모자이크처럼 공존하고 교차하는 차이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아니라 친밀하고 관심을 서로 기울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즉 “도시의 삶(City Life)”을 “규범적 이상(a normative ideal)”으로 삼고자 한다.<sup>58)</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왜냐하면 첫째, 도시의 삶은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회적 구별과 분화를(Social differentiation without exclusion)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삶이란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차이들을 허용하고 포용하여 발전시켜 줄 수 있다. 둘째, 도시의 삶은 우리에게 흥겨움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성(Variety)을 선사한다. 셋째, 도시의 삶은 낯선 타자에 대한 끌림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에로티시즘(Eroticism)을 제공한다. 도시의 삶에는 폐쇄적 공동체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타자들의 신선하고 호기심 어린 매력이 풍부하게 공존한다. 그래서 서로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도시의 삶은 다양한 집단들에 열려 있는 공공성(Publicity)의 여지를 남겨주며 이를 발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공공성, 공개성이란 서로 다른 주체

---

57) Ibid., 226ff.

58) Ibid., 236-241.

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하고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게 하며 이질성을 수용하고 서로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러한 도시의 공공적 대중(public)이야말로 차이의 정치가 전제하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도시의 삶이 가능하려면, 지역 분권화와 정치적 자치성이 아울러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배와 억압을 최소화하면서 차이에 대한 상호적 관용을 통하여 다름의 가치를 배우면서 서로 성숙하고, 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정치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상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해야 될 책임과 과제를 지닌다.<sup>59)</sup>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차별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차이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과당적 분리, 차별과 배제가 심화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격차와 도시 내부적인 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의 착취, 주변화, 문화제국주의에 더 심하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위구조의 계층의 사람들은 자본의 지배와 국가적 관료주의에 의해 의견 표현과 의사 결정권에서 배제되면서 더욱 이러한 불의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정착되어진다.<sup>60)</sup>

절제되지 못한 지구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영은 “도시의 삶” 개념을 통하여 우리 일상적 공동체의 공간이 어떤 이상적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하는 대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도시의 삶” 개념을 통해 사회변혁에 대한 비전과 꿈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다. 영은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가치를 인

59) Ibid., 234-236.

60) Ibid., 227.

정하고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요약하면 영은 개인주의, 개별성 보다는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보다는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위계질서적 지배, 소외, 권력없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sup>61)</sup> 지역마다 자율권 확보, 재정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투명화하며 분리를 극소화하고 각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도록 추구한다.<sup>62)</sup> 즉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상이한 그룹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어떻게 포용하고 포함하느냐가 그 관건이 된다.<sup>63)</sup> 그런데 문제는 영이 도시적 삶을 너무 이상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도시적 삶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상황 속의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공동체성이 함께 작용하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가 구축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영은 도시의 삶을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로 표현하였으나,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증대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문제와 도시 내의 무관심, 관용없음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여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추상적 이념처럼 들린다.

이미 중세 말기 자본주의의 초기 도입단계와 봉건체제 속에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게 되었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의하여 그 경제적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중간 이익집단이 존재함과 아울러서 도시 상공인들이 주도하는 경제적 상황이 생겨

61) Ibid., 251.

62) Ibid., 254.

63) Ibid., 238-241.

남으로써 불의한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하였다. 츠빙글리 시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써 대두 되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소수의 신흥귀족이 도시를 중심으로 부를 장악하며, 연금제와 용병제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었던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었다. 도시와 지방과의 대립과 격차는 이미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종속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도시의 주변부와 도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토지에 대한 십일조세 거부, 과격한 성상 폐지 등 여러 형태의 분노한 집단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64)</sup>

물론 영도 도시화의 문제성을 지적하기는 하였다.<sup>65)</sup> 영이 포착한 도시와 도시들 사이, 혹은 도시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억압과 지배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은 첫째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적 지배의 확대, 둘째 의사결정권의 불투명성과 재화분배구조의 모순과 문제성, 셋째 배제와 분리, 차별적인 관점의 확대이다.<sup>66)</sup> 영은 지배와 억압을 최소화하며 힘을 복돋우며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권을 포함한 참여적 의사 결정권의 확대를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형태를 지방, 지역 분권화의 형태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자율성 (autonomy)은 자주적 통치권(sovereignty)을 내포하는 것이다.”<sup>67)</sup> 영은 배제를 강조하는 닫힌 개념으로서의 자율성에 주목한다. 이것은 타자를 배제하고 결정과 행위로부터 교류하지 못하게 한다. 즉 개인성과 법적 체계 안에서 파악되지만 힘을 나누는 것과는 구별되어진다. 정의란 각 개인의 행위와 그 행위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에 효율

64)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136-165.

65)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241.

66) Ibid., 241-248.

67) Ibid., 249.

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결정 구조를 통하여 결정의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적 차이와 구별을 무시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가 단순히 철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되어서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촉구한다.<sup>68)</sup>

그러나 도시적 삶에 대한 영의 비판과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지배, 종속구조의 고착화, 기술지배에 의한 계급간의 격차 증대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약하다. 실제로 전 지구화된 시대의 오늘날의 도시는 다양성을 품어내는 관용의 장소가 아니라, 농촌의 삶의 피폐함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며, 이를 수 없는 욕망 실현의 장소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도시 빈민층(urban poor)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그와 연계된 문제를 초래하게 하였다. 특히 제 3세계에서 도시로의 인구 과잉 이동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sup>69)</sup>

이처럼 도시 안에서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되는 세계적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고찰 없이 미국적 도시화의 이상적 형태만을 강조한 것은 영의 한계라고 보겠다. 물론 하부구조적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낮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화의 규범적 모습은 중요하다. 이것은 이상 사회적 공리주의에 입각한 규범이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현실 사회에서 적용 하고 보편화하며 실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윤리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68) Ibid., 255-256.

69) 도시로의 인구 과잉 이동현상과 그에 따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Helge Neuschwander-Lutz et.al., Auf dem Weg in die Stadt, *Auftrag*, Nr. 1, März(2011), 4-16.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화를 일방적으로 이상화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농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부각시키며, 이러한 도농간의 편중된 이동 현상의 원인을 치료 하고,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며, 도시와 도시간의 통합적 행정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방 자치적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 VI. 나가는 말

사회정의의 문제와 공동체의 책임성의 측면에서 본 논문은 영과 츠빙글리를 연관 지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시대적, 지역적, 상황적 차이가 있는 영과 츠빙글리를 대비시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각자의 논리의 충돌과 한계가 있으나, 사회 윤리적 기본 개념인 구조적 죄와 공공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교집합이 형성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영은 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봄으로써 사회 부정의를 일차원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복합적이고 교차적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보다 수 세기 앞서서 츠빙글리는 신학적 사회 책임 윤리와 정의론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정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인간적 정의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만큼 완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인간적 정의 안에서 그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츠빙글리가 토대를 놓은 정의론을 바탕으로 영의 정치적 책임 윤리론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던 본 논문은 죄를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 영역으

로만 축소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집단적, 구조적 체제의 문제와 메커니즘의 문제와 연결 짓는 작업이었다. 즉 공동체적 사회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보는 것이 츠빙글리와 영에게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강조하려던 결론이었다. 영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적 죄의 문제, 공동체성과 정치적 책임윤리론은 이미 츠빙글리의 사상과 종교 개혁적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적 죄의 문제와 공동체성과 정치적 책임윤리론은 이미 츠빙글리의 사상과 종교 개혁적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성된 각자의 개별적 책임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변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 하는데 있어서도 16세기와 21세기라는 시대와 지역의 간극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정의와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츠빙글리의 사회윤리는 단순히 이론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후 스위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었다는 점에서 영의 이론적 한계를 신학적으로 보완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겠다. 그녀가 결론적으로 도출했던 대안적 해법인 이상적 도시이론은 이미 츠빙글리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도시화의 문제성을 지적했던 관점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으며, 향후의 보다 심도 깊은 별도의 연구로 발전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신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 김원식. “정의론과 여성주의: 아이리스 영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4권, 2012, 23-50.
- 롤즈, 존/황경실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루츠, 사무엘/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한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아렌트, 한나/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2006.
- 영, 아이리스 M./허라금 · 김양희 · 천수정 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서울: 이후, 2013.
- 이현재. “지구화 시대 도시정의를 위한 시론: 분배정의와 차이, 인정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권 2, 2011, 349-377.
- 장미경. “페미니스트 근대론자들: 낸시 프레이저, 아이리스 영, 앤 필립스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43권, 1999, 154-177.
-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회윤리』. 31권, 2015, 217-249.
- \_\_\_\_\_. “용병제도를 통해 본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사회 경제적 배경”. 『유럽 사회문화』. 제 15권, 2015, 241-270.
- 조용석.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Theozentrik):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권, 2011, 233-253.
- \_\_\_\_\_.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장신논단』. 46권, 2, 2014, 115-135.
- 조주영. “정의와 차이의 정치: 아이리스 마리온 영”. 『여/성이론』. 28권, 6, 2013, 84-93.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정미현 역.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말씀과 교회』. 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46권, 2008, 271-27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페스트 노래』.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

- 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522)』.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 (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프레이저, 낸시·호네트, 악셀/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고양: 사월의 책, 2014.
- 하이스, 마르틴/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신학연구소, 1999.
- 허지민. 『견제력과 포용: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 민주주의 비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Neuschwander-Lutz, Helge, et.al., Auf dem Weg in die Stadt, *Auftrag*. Nr. 1, März, 2011, 4-16.
- Peyer, Hans Conrad,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remden Dienste für die Schweiz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Könige, Stadt und Kapital. Aufsätz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des Mittelalters*.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1982, 219-231.
- Winzeler, Peter. *Zwingli als Theologe der Befreiung*, Basel: Friedrich Reinhardt Verlag, 1986.
-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Intersecting voices: dilemmas of gender,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Global challenges: war,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for justice*. Malden, MA: Polity, 2007.
- \_\_\_\_\_.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15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정치 철학자 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정의를 향한 책임적 정치론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의 윤리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 접근 방법으로 시민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영과 홀드리히 츠빙글리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21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한 여성 정치철학자와 16세기에 스위스에서 살았던 한 남성 종교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서 첫째 정의를 향한 기본 의식이 강하게 자리매김 되었고, 둘째 정치적 책임과 공동체성이라는 기본적 화두를 접착점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집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첫째 영과 츠빙글리의 특성을 제시하는 억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해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영은 억압과 지배의 다섯 가지 유형의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정의론을 펼치는데, 그녀는 분배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정의를 포함하여 분배 부정의 뿐 아니라, 다각적인 억압이 분배 문제를 넘어서 존재함에 주목하게 한다. 둘째 사회구조와 정의, 그리고 죄와 책임성의 문제를 츠빙글리 시대의 용병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금식규정문제와 영의 논리 전개 of 틀에서 교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녀의 접근법은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 정의론이 제시한 분배 정의이론의 편협성을 수정하고, 사회부정의와 억압의 복합적 현상을 젠더담론에서 보완하였으며 민주적 협치 체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의의를 가져왔다. 정의와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츠빙글리의 사회윤리는 단순히 이론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실제 스위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었다는 점에서 영의 이론적 한계를 신학적으로 보완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겠다. 본 논문은 영의 대안적 해법인 이상적 도시이론의 적용 한계성을 츠빙글리가 짚어낸 당시 도시화의 한계와 지구화적으로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도시화의 문제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마무리 되었으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주제로 발전될 수 있겠다.

**주제어:** 정의, 아이리스 마리온 영, 홀드리히 츠빙글리, 억압, 책임

---